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16일(화) 오전 10시 예수마음교회에서 열립니다.

12시 30분 교회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철 지난 옷 중 입지 않게 된 것을 정리해서 초록가게에 기증해 주세요.

오늘 식당 봉사 : 백혜숙 김희우 정현숙 박경원 김현주 조순덕 박규석
 다음 주 식당봉사 : 안정숙 진정숙 박미란 이용숙 최희영 유영남 김종술
 오늘설거지봉사 : 양상철 박재란 정윤성 서효진
 다음주설거지봉사 : 이국노 김민화 조선환 강인숙
 새 교 우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가을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 주시는 가을하늘은 어찌나 높고 맑은지요. 그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바람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그 신선한 기운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전해져, 많은 일로 어둡고 무거워진 몸과 맘을 밝고 가볍게 해 주십시오.

주님, 어린 학생들의 자살이 연이어 일어나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과도한 입시경쟁과 학교폭력의 희생양이 된 학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그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 주시고 유가족의 찢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속이	권미숙	권혁순	박혜경	김경수	김남종	오복순	김명순	이교영
김성한	조영순	김순자	김영순	김용길	최영혜	김일랑	이은옥	김재환
김진선	김재흥	최희영	김준우	우순덕	김중문	김중수	이순정	김지호
전혜리	김필순	김현주	노준우	문금석	문복순	최현선	문홍일	민병배
문현미	박범희	박미영	박시내	박인혁	박정순	배근수	김금순	배재경
이수정	백묘현	서정순	안길상	이형숙	안세진	안종일	정현주	양재성
임미심	왕수명	윤주원	최윤선	이경남	이계선	이소순	이국노	김민화
이동천	이민범	공재량	이봉배	이성범	권혁숙	이예서	이우현	옥귀희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종배	이종현	이한림	김명희	장재영	김재영
전영자	정두리	정선희	정우선	조경자	조문규	진정숙	조병역	조정연
최철수	곽권희	한상경	한성건	한완식	임정자	한훈식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김명순	이교영	김정진	김혜정	박응순	이경민	이두걸	이지혜	이범춘
이은옥	이인웅	오송경	이정은	이주영	오재영	이춘재	정두리	정영선
최윤희	홍선희	홍순구	안홍숙	무명2				

녹색꿈헌금: 김재흥 문복순 최현선 허호범 박성실 무명10

생일감사헌금: 신영신

장혜숙	백혜숙	장혜숙	송임희
노순옥	박성희	배부레	노순옥
최희영	최경미	서원금	이은옥
장영숙	신영신	박경선	김명순
정경례	진정숙	이봉배	박옥순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정선희
박효선	허정운	박효선	허정운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이순정
이형숙	권미숙	이권미	구성실
안홍숙	오현정	김명희	이증자
정영선	서정순	홍춘영	서정순
박혜경	조향미	최영혜	조향미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마음으로 읽는 글

직선의 방식

이만섭

직선은 천성이 분명하다 바르고 기쁘고
 직선일수록 자신만만한 표정이다
 이는 곧 정직한 내력을 지녔다 하겠는데
 현악기의 줄처럼 그 힘을 팽창시켜 울리는 소리도
 직선을 이루는 한 형식이다
 나태하거나 느슨한 법 없이/ 망설이지 않고 배회하지 않으며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단순한 정직이다
 밤하늘에 달이 차오를 때
 지평선이 반듯하게 선을 긋고 열리는 일이나
 별빛이 어둠 속을 뺏쳐와
 여과 없이 눈빛과 마주치는 것도
 직선의 또 다른 모습이다
 가령, 빨랫줄에 바지랑대를 세우는 일은
 직선의 힘을 얻어
 허공을 가르며 쏘아대는 직사광선을
 놓치지 않으려는 뜻이 담겨있다
 그로 인하여 빨래는
 마음 놓고 햇볕에 말릴 수 있을 것이다
 바지랑대는 빨랫줄로 말미암고
 빨랫줄은 바지랑대 때문에 더욱 울곧아지는/ 그 기꺼운 방식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헌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무르익은 삶을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먹인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먹이며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다른 이를 먹이며 사십시오.

아멘. 다른 이를 먹으려 할 뿐 다른 이를 먹이며 살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 주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최성애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한완식 장로	방준 선생 김종락 집사

10월	영접위원	방문성 권혁순 박규석 권미숙 박경선 박혜경
	헌금위원	조병무 이형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녹색순교

... ‘순교’라는 말은 본디 그리스어 ‘마르튀리온’(μάρτυριον)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이 말은 라틴어 ‘마르튀리움’(Martyrium)으로 번역되어 교회에 유입된 단어다. 본래 이 말은 ‘증언’ ‘증거’를 의미했지만, 교회 안에서 사용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행위’를 뜻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바치며, 그분이 가르치신 바를 증언하거나 실천하고 죽은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 부르며 공경한다. ...

그렇다면 더 이상 박해가 없어진 오늘날, ‘순교’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어떠할까? 지난 2000년 5월 7일,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로마 콜로세움에서 1만 2,692명의 그리스도인을 ‘신앙의 증인’으로 선포하였다. 이는 제3천년 기를 맞이하여 선포한 대희년의 주요행사 가운데 하나였다. 이 선포는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성공회 등 교파를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교 순교자들을 망라한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나치에 의해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희생된 에디트 슈타인 수녀와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 그리고 독일 ‘플로센부르크 수용소’에서 처형된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를 비롯하여, 1980년 산 살바도르(San Salvador)에서 살해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등이 포함되었다. 이렇듯 오늘날에도 ‘순교’의 대표적 이미지는 여전히 “적색순교” 즉 “피의 순교”가 차지하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바람과 열망과는 달리 일반 신자들에게 ‘순교성인’에 대한 공경은 점차 시들해져 가는 듯하다. “성인의 모범을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자신의 생물학적인 목숨을 내어놓는 “적색순교” “피의 순교”가 이제는 멀고도 먼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박해가 없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순교성인’만을 신앙의 모범으로 첫 자리에 세우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유다.

과연 “적색순교”를 제외하고 다른 의미에서의 ‘순교’는 없는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약 1500여 년 전에 이미 ‘목숨을 바치는’ “적색순교”와는 다른 형태의 순교에 대한 정의가 등장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 (재위 590-604)는 <복음 강론>(Homilia in Evangelia)에서 <마태 16,24-25>을 설명하며 순교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언급한다. “적색순교” “백색순교” 그리고

“녹색순교”가 바로 그것이다. ...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백색순교”는 순교성인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개념이다. 또한 오늘날 “백색순교”에 대한 이상(理想)은 남녀 수도자들의 수도서원을 통해 가까워서 접할 수 있다. 비록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철저한 금욕주의를 지켜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수도자들의 열망은 복음적 권고인 “청빈” “정결” “순명”의 수도서원에 녹아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해 피로써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지는 않지만, “세상 한 가운데서 하느님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숨은 삶”으로써 ‘하느님 안에서 세상’을 사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

순교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신앙은 예수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순교의 원형”으로서 그들에게 전해준 메시지 안에 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졌다.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삶’이다. 이 구원을 방해하는 현실, 즉 예수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의 피조물’이 파괴되는 현실에 맞서라는 것이다. 이 ‘파괴’의 현실은 ‘하느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있다. 그리고 이런 현실에 맞서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참 의미다. 우리의 삶 전반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며, 신앙을 증거하고 자기 자신을 투신하는 것”, 즉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사는 것’이 바로 “녹색순교”다. 그런 의미에서 ‘순교’의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있다.

더 이상 박해로 인한 “적색순교”가 없는 이 시대에, 교회는 “적색순교”에 갖는 애정만큼 “녹색순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순교성지’개발에 들이는 노력과 열정만큼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사는’ 그리스도인, “녹색순교자”들을 찾아 나서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몇 백 년 전에 순교한 분들의 영성만을 계속 우려내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순교성인들의 ‘피의 대가’를 이용만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순교성인’을 공경하는 것은 그들의 목숨 값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순교성인들의 영성을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신앙 안에서 구체화, 현재화시키지 못한다면, 순교영성은 그야말로 “고인(故人)과의 대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피의 순교”가 사라진 오늘날 “순교자 성월”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순교’를 다시 생각하는 이유다.

- 김홍락 신부(가난한 그리스도의 종 공동체), 가톨릭 뉴스 <지금여기>